

목장 나눔지

잔치에 오세요

마태복음 22:1-14

<한 주간 삶 돌아보기> 감사한 내용, 응답받은 기도 등을 나누어봅시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하기>

<말씀묵상>

천국은 마치 잔치 집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잔치 비유를 통해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할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아들의 혼인 잔치에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초청에 저마다 반응을 합니다.

1. 복음 잔치에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 (1-4절)

왕은 아들의 혼인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귀한 손님들에게 수 개월 전에 초대장을 미리 돌렸고, 혼인 당일에 종들을 보내어 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소와 살진 짐승들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어 최고의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왕의 아들은 구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복음 잔치에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즉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모든 것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왕이 손님들을 거둬 거둬 초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시며 복음 잔치에 계속 오라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잔치에 부르셨다는 은혜를 알고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2. 복음 잔치에 오지 않는 사람들 (3-7절)

왕에게 초대받은 사람들은 초대장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이미 가겠다고 동의했고 충분히 자신들의 스케줄을 조정해서 와야했습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손님들은 가지 않겠다고 왕을 무시했습니다. 거절과 수모를 당한 왕은 오히려 너그럽게 맛있는 음식이 충분히 준비되었기에 다시 오라고 했지만, 이들은 자기 할 일이 바쁘다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무례하고도 무관심하게 다시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대감을 가지고 왕의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왕은 분노하여 군대를 보내 이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버립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지자들과 심지어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들었지만 무시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거둬거둬 주시지만 무시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사는 것이 좋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성경보다도 세상 돌아가는 뉴스에 관심이 가고 원하는 책을 읽고 교양을 쌓는 것에 더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서 교회에 나올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영혼의 문제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3. 복음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 (8-10절)

왕은 종들을 다시 보내어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거리로 가서 만나는 대로 결혼 잔치에 오라고 합니다. 혼인 잔치에 약하거나 선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건강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고, 잔치장에는 사람들로 가득찼습니다. 당시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면, 나중에 초

대받은 길거리 사람들은 소외받던 사람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실로 이 잔치는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꿈만 같았을까요? 복음은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길거리에서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의 잔치로 초대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4. 복음 잔치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 (11-14절)

많은 사람들이 혼인 잔치에 들어와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 때 왕이 손님들을 보러 잔치에 들어와서 인사를 하는데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당시 결혼 잔치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예복을 왜 입지 않았는지 물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에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복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왕을 모욕했던 것입니다. 왕은 그의 손과 발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지게 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 둔 조건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공로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결혼 예복은 “구원의 옷”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것을 믿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지만 결혼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구여, 예복을 입었는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입을 열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주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내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구주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구원받았음을 알고 복음 잔치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눔질문>

1.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결혼 예복을 입고 있느냐? 네가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2. 이번 새생명 축제는 그야말로 복음 축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퍼뜨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새생명축제를 6주 동안 말씀을 통해 준비하면서 그리고 축제 당일 주일에 누렸던 은혜가 있다면 나누어봅시다.
3.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누어봅시다.

<함께 기도>

1.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2. 목원들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3. 전도 대상자(가족 포함)의 회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4. 부흥을 주셔서 주일예배와 주중기도회, 목장모임, 주일학교, 서머나아카데미, 부서 및 전도활동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5. <새생명축제>에 나온 모든 태신자들이 회심하게 하시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22일 (토) <새모내모 어린이축제>를 통해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도록 기도합니다.